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5월 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젊은 구역장으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오 유 진 -

저의 어머니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가족과 이웃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사랑을 실천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저도 교회학교에서 매 주일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아동구역예배, 여름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등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창시절을 잘 보내고 고등부를 수료한 후에 교회학교 아동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교회 밖에서 세상의 여러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던 중에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거야!”

그때부터 저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성도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예배와 봉사에 임하는 자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교회학교의 성전 미화를 담당하여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중에 드리는 예배와 청년 기도모임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설교를 경청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깨닫는 기쁨이 커졌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강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젊은 날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봉사전교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와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미래의 저의 모습을 그려보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금요기도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불 꺼진 성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저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크고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천국가는 날까지 저를 굳게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도와주세요.”

그처럼 기도하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교회를 예쁘고 거룩하게 장식하는 봉사를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교회 언니의 소개로 다른 교회에 다니던 형제를 만나 결혼하여 동탄신도시에 신혼집을 차리고, 함께 은혜와진리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점점 육아와 교육 정보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와 봉사를 소홀히 하면서 청년의 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다짐과 각오가 어느새 희미해지고 대신 세속적인 가치관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막 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에게서 음성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낙심한 저는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태로 체중이 많이 줄고 기력이 약해져 아이를 등교시킨 후에는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처럼 실의에 빠져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성경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여 점차 기력을 되찾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회에 참석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과 달리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일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관련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되뇌며 암송하고, 종일 설교와 찬양 방송을 틀어 놓고, 성경 필사를 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동시에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극도로 힘들어 하거나 낙심해 있을 때면 어김없이 교구 전도사님과 어머니가 심방 오시거나 전화하셔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변의 좋은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고, 남편이 가정을 위해 더 애쓰며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동행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제가 받은 위로와 소망이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는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먹고 마시며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등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임을 알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전에 멀리만 보였던 천국을 가까이 바라보며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이 고난도 결국에 그 끝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말씀해 주시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교회중심, 예배중심, 봉사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심령에 가득 차고도 넘친다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삼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시편 144:12)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니다. 저의 자녀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셔서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책과 미디어를 통해 세계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사상과 이념의 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폐단과 해악을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인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난날 정치에 무관심하고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을 보고 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교회에 젊은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은 제2남성봉사연합회에, 저는 여성봉사연합회에 소속하여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며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성봉사연합회 안내봉사부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시고, 성전미화 봉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영예로운 구역장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사랑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감당할 능력과 지혜 또한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제 또래의 성도들과 함께 구역 예배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며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구역원들을 만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이가 중증의 축농증 진단을 받고 두통으로 고생하던 중에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역원들에게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아이의 코 주위 얼굴 뺨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농이 깨끗이 사라져 약도 수술도 필요없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구역 성도들의 합심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저를 작년 하반기부터 꽃꽂이부의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일이 아니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곧 젊은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재능을 키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경험 많은 부원들의 도움을 받고 또 배우면서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꽃꽂이를 할 때마다 손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가져오시는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과 부원들이 협력하고 조화하여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 뜻으로 여러 젊은 부부가 함께 봉사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청년시절 그 때 성전에서 기도한 그대로, 오늘 저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믿음과 지혜와 힘을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 은혜와진리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2권 (제10단원 : 성도의 바람직한 생활자세)

(제47과) 봉사생활

- 본문 : 디모데전서 1:12-14

• 요절 :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

• 찬송 : 369장(새찬송가 218장), 492장(새찬송가 435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맡은바 일을 완수하도록 감당할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벧전 4:11).

즉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봉사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도는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활동에 실제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뒤따르게 하셨으며, 이로 인해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교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장로들과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행 21:19,20).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빌 2:13)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마음에서 불타는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여 일생을 바쳐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림으로 그 당시는 물론 후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주님의 일에 힘써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성도는 봉사를 통해 온전케 되며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저마다 맡은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직분을 주시되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또는 여러 선교회에 소속되어 각자의 달란트대로 봉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러한 봉사에 동참할 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봉사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유익되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엡 4:12).

그러므로 성도들은 봉사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성찰해 보고 더욱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므로 보다 깊은 신앙생활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치 않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은 봉사의 기쁨을 체험한 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역장으로서 맡은 구역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부흥시키는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이 넘쳐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전도의 결실도 많이 맺게 됩니다.

3. 봉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이같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십시오 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남들처럼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전 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을 때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 각자에게 맡은 봉사에 필요한 자질과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고 하셨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한데 대해서 상급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는 여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였으나 한 번도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4)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고,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온전해지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영동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억복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